

국내 비영리조직 생성형 AI 활용 현황 및 인식 조사 결과

# AI와 비영리, 네 가지 얼굴로 마주한 변화의 파도

2026. 04. 09

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안효미

# 오늘 나눌 이야기

01

## 연구 개요

배경, 목적, 연구문제

02

## 조사 대상의 특성

응답자 및 조직 특성

03

## 활용 실태

사용률, 빈도, 도구, 조직 대응

04

## 활용 수준과 영향 요인

예측 요인, 격차, 태도, 업무 경험

05

## 네 가지 아키타입

전략형 · 실험형 · 신중형 · 전망형

06

## 시사점과 과제

조직별 접근, 섹터 대응

# 01. 연구개요 국내 비영리 현장의 AI, 첫 기초자료

## 왜 이 연구인가

- 비영리 현장에서 생성형 AI 확산 — 그러나 체계적 실증 연구 부재
- 해외 연구는 특정 국가·기관 유형에 한정
- 한국 비영리의 구조적 특수성 반영 필요 (소규모, 자원 제약, 미션 중심 조직 문화)
- 활용과 비활용,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장의 복수적 현실 포착

## 세 가지 연구문제

### RQ 1 활용 양상

국내 비영리 현장에서 생성형 AI 활용은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으며, 어떠한 기본 양상으로 나타나는가?

### RQ 2 예측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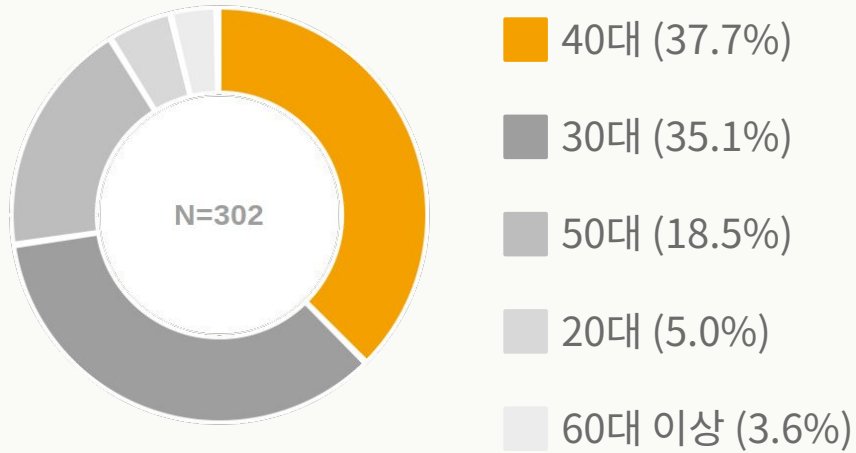
생성형 AI 활용 수준은 개인의 디지털 특성,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, 조직적 여건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?

### RQ 3 유형 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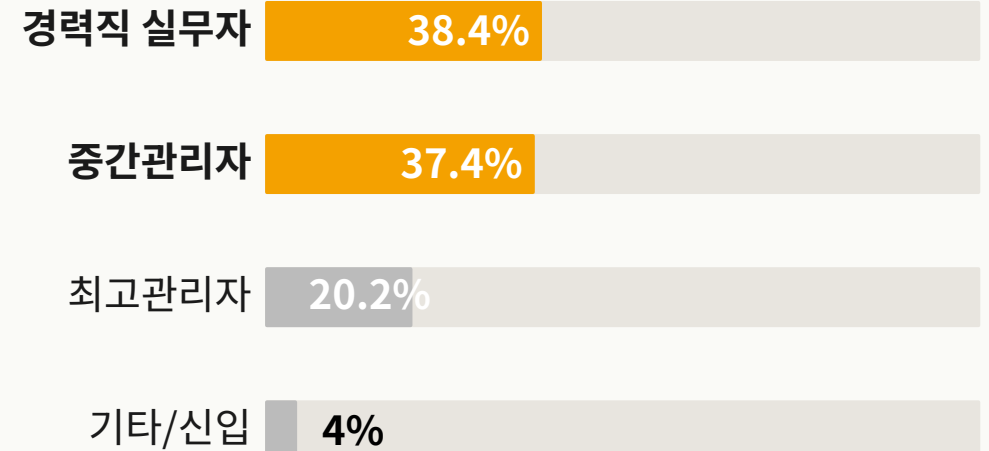
비영리 현장의 생성형 AI 활용은 어떠한 유형으로 분화되며, 각 유형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?

## 02. 조사대상 응답자 특성

### 연령대 분포



### 직급 구성



### 근속 기간 분포 (균형 있는 경력 분포)

\*전 구간 20% 이상 고르게 분포

**30.5%**

10년 이상

**27.2%**

2~5년

**21.5%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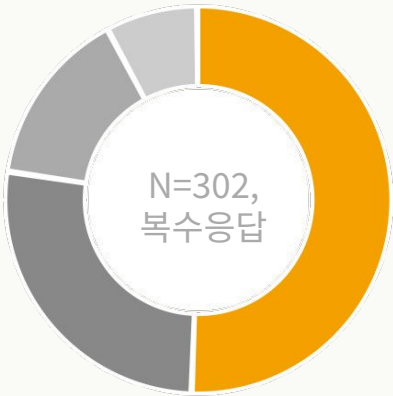
5~10년

**20.9%**

2년 미만

## 02. 조사대상 조직 특성

### 주요 기능 유형



직접서비스제공기관 (63.2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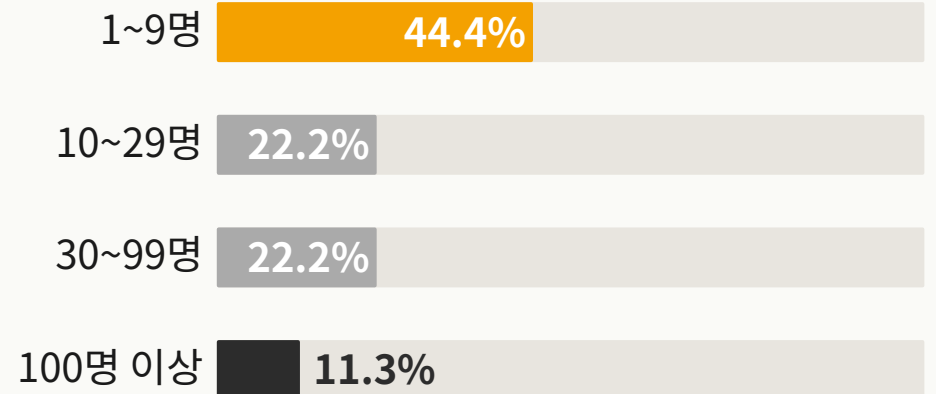
모금기관 (33.4%)

배분지원기관 (18.5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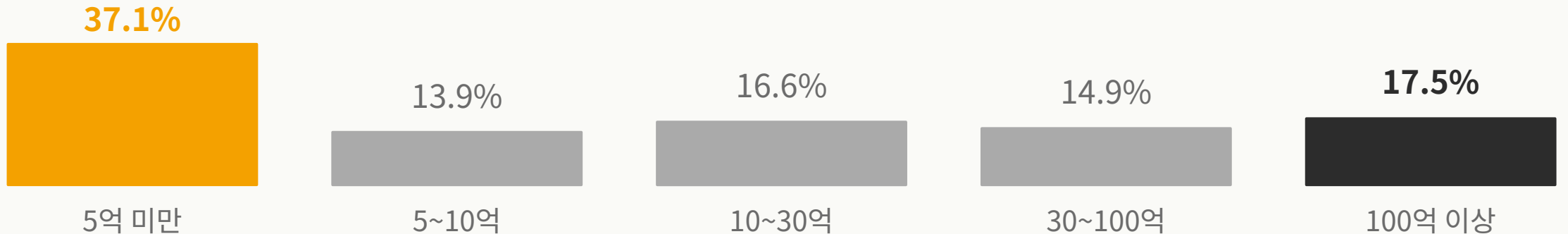
기타 (9.6%)

\*복수응답 허용, 합계 100% 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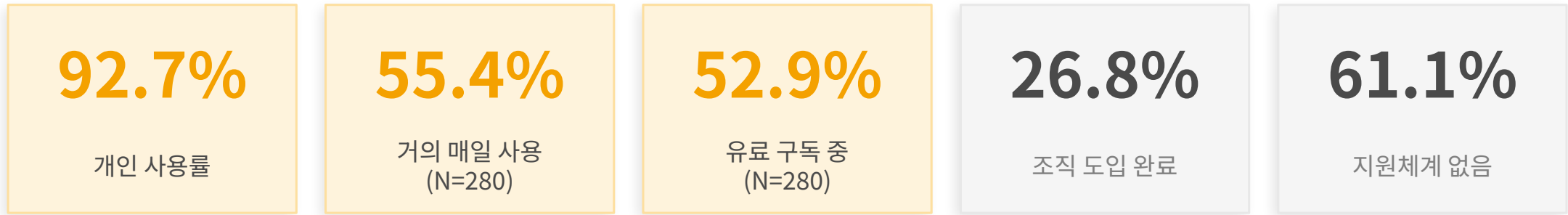
### 상근인력 규모



### 연간 예산 규모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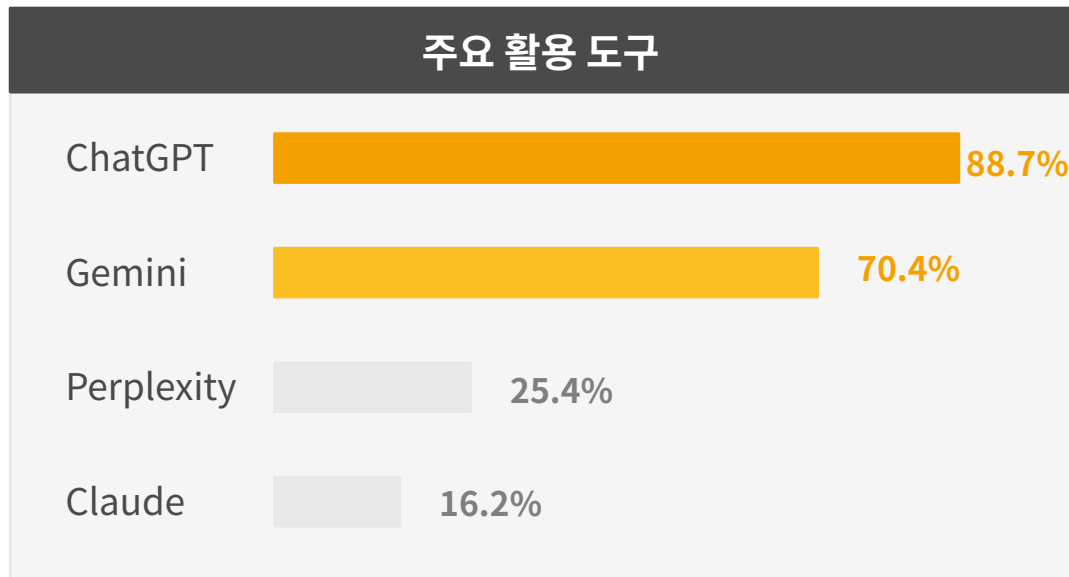


# 03. 활용실태 이미 일상화된 도구 AI, 아직 준비 단계의 조직



← 개인 활용

조직 대응 →



# 04. AI 활용수준과 영향요인 AI INDEX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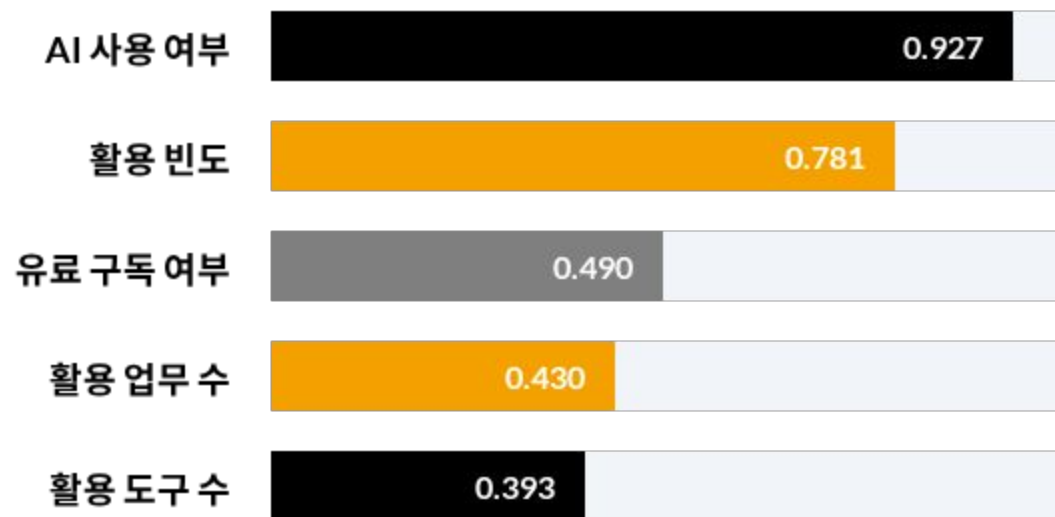
# 0.604

평균 AI 활용수준  
지수

AI 사용 여부, 빈도, 구독, 도구 및 업무 수 등  
5개 핵심 지표를 정규화하여 산출  
(Cronbach's  $\alpha = .769$ 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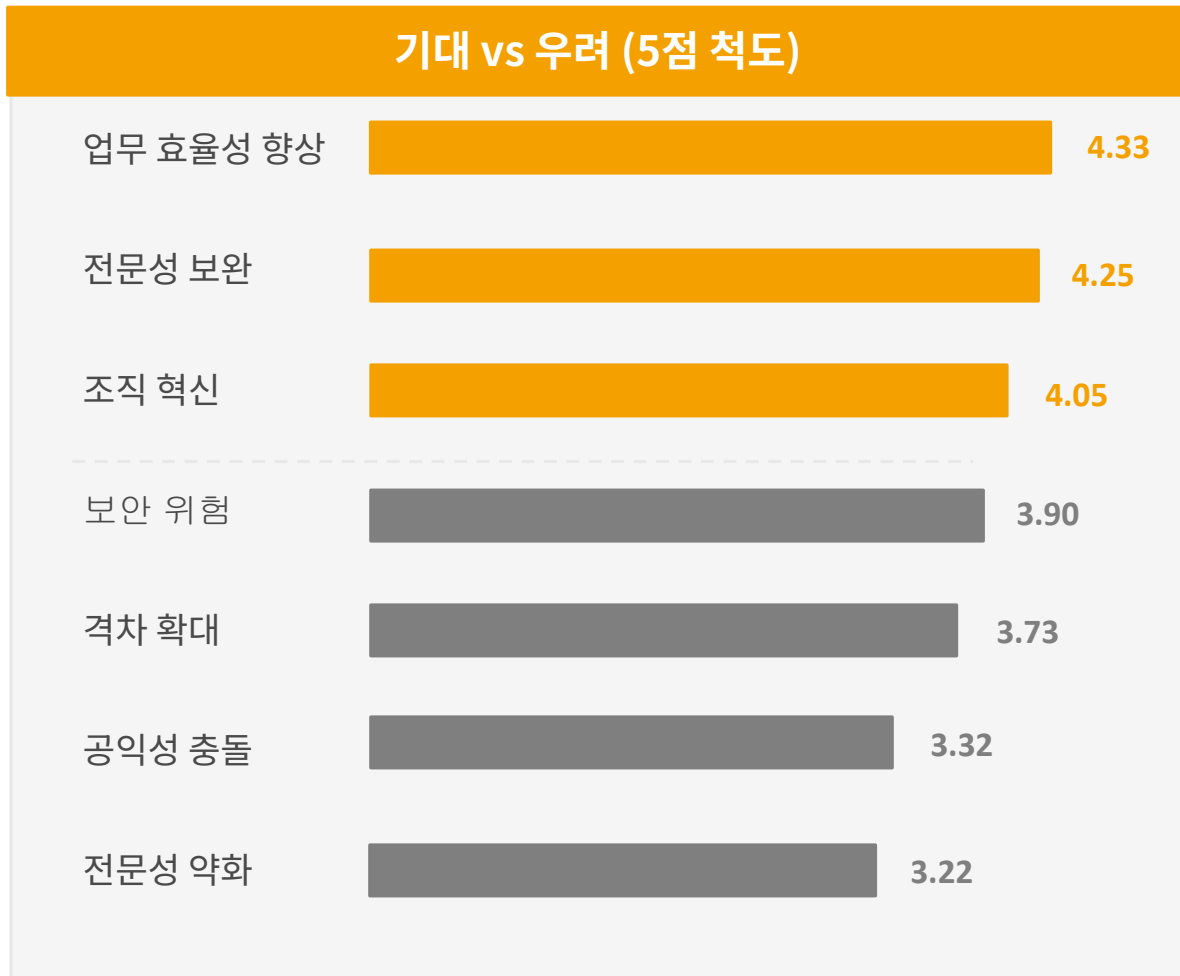
사용률은 높으나 활용의 '깊이'는 낮은  
초기탐색단계양상

지수 구성 요소별 평균 (0~1)



대다수 종사자가 1~2가지 도구로 제한된 업무에만 AI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남.

# 04. 활용수준과 영향요인 기대와 우려의 비대칭적 공존



기대 ↑ 경험으로 빠르게 상승 / 우려 ↗ 경험해도 남는다

긍정 기대는 활용 수준에 따라 계단식 상승 ↑

보안·격차 우려는 활용량과 무관하게 지속

→ 조직 차원의 기준과 숙의 과정이 별도로 필요

## AI와 업무 경험 — 효율 ↑ 사명감은 독립

**업무 몰입감** F=9.531, p<.001, 상위(4.25) > 중위(3.89)·하위(3.90)  
 AI 활용 ↑ → 몰입 ↑

**에너지·활력** F=4.999, p=.007\*\*, 상위(4.14) > 하위(3.81)  
 활동 수준과 함께 상승

**업무 의미감** F=1.418, p=.244, 집단간 비유의  
 AI와 무관하게 유지됨

# 04. 활용 수준의 예측 요인 개인과 조직 구조적 격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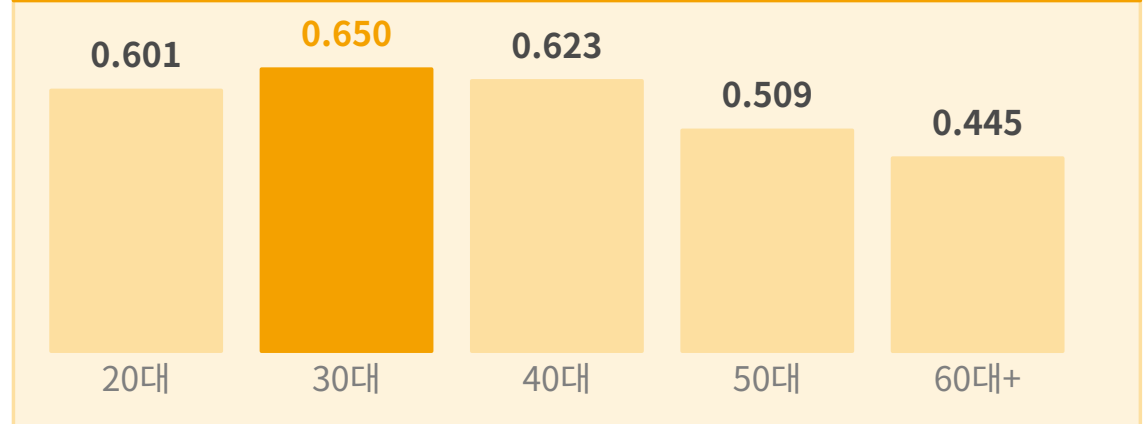
## 위계적 회귀분석 — 활용수준 예측 요인

전체 설명력 R<sup>2</sup>=.21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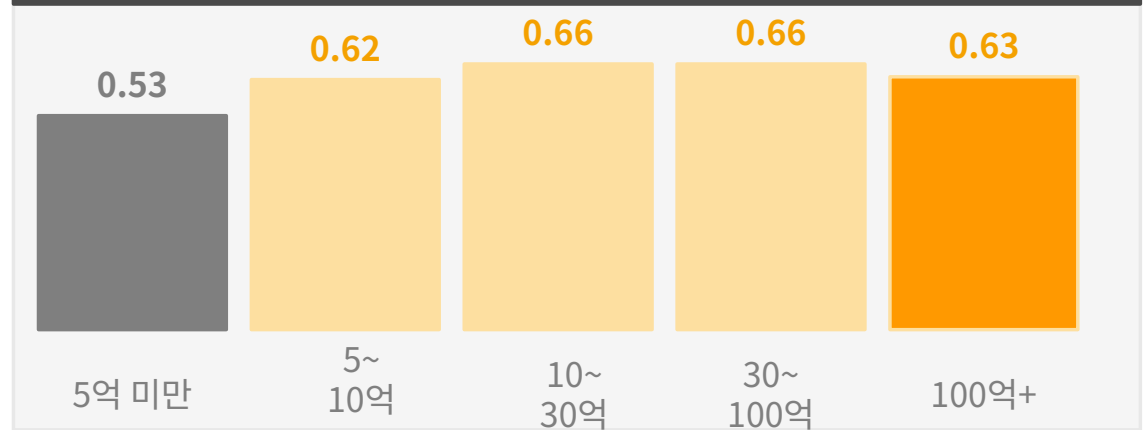
디지털도구 개방성 개인	$\beta=.290^{***}$
연령대 (역방향) 개인	$\beta=-.184^{***}$
디지털 역량 개인	$\beta=.164^*$
조직 윤리 가이드라인 조직(억제)	$\beta=-.129^*$
조직 AI 도입수준 조직(억제)	$\beta=-.121^*$

개인 특성이 설명력의 64% 차지

## 연령대별 AI 활용수준 지수 - 세대격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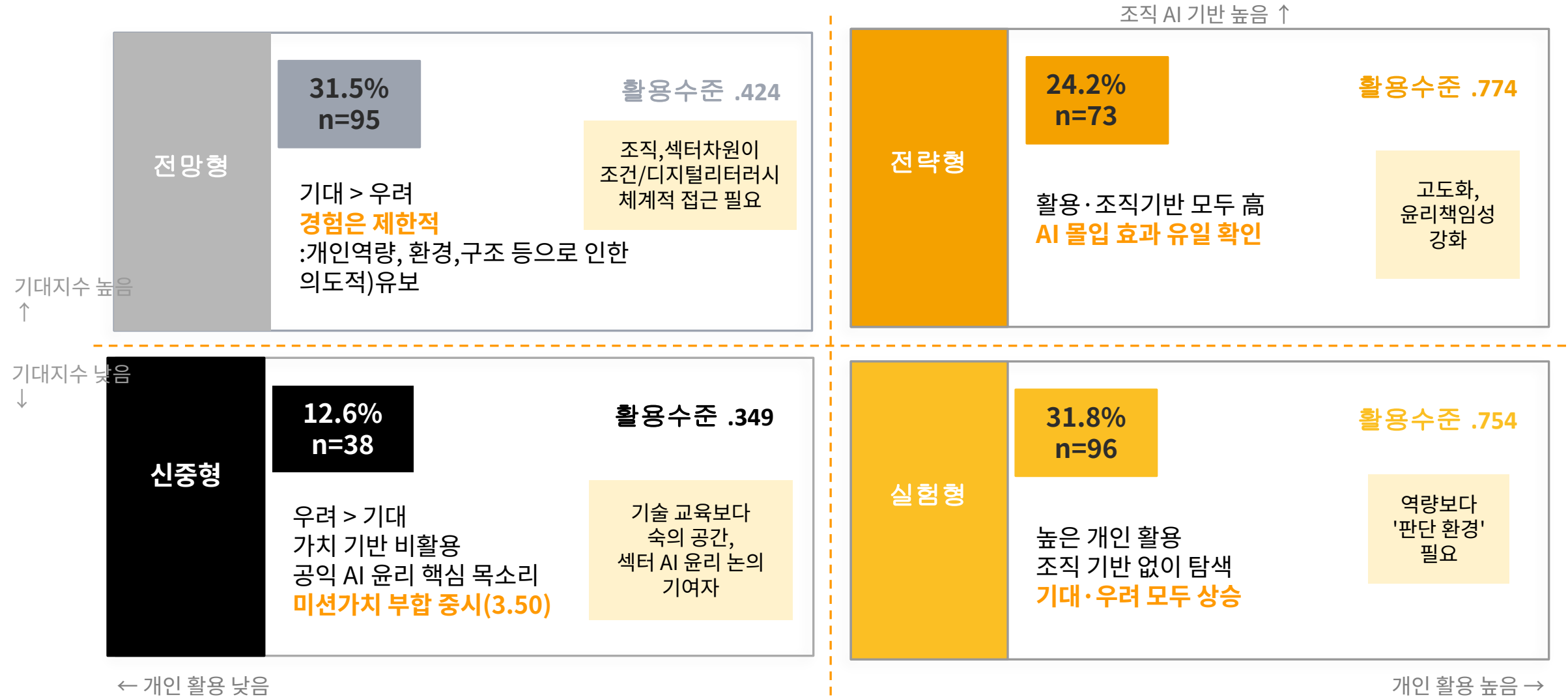


## 예산 규모별 활용수준 — 자원격차



※ 소규모 조직: 자원 지원 필요 / 대규모 조직: 자율 탐색 환경 필요

# 05. 활용 유형 네 가지 아키타입



※ 유형 분류 목적: 고정 범주화가 아닌 각 집단의 필요에 맞는 지원 방향 도출 (Higdon & Raftree 2025 프레임워크 국내 맥락 적용)

## 06. 시사점과 과제 다섯가지 핵심발견

### 개인이 먼저, 조직은 뒤따른다

사용률 92.7% vs 조직 도입 27.1%, 지원체계 없음 61.1%  
— 조직의 공식 판단 없이 개인 책임으로 AI 탐색 중

### 개인 역량이 핵심 동인

디지털 개방성·기대가 활용을 예측 / 직급·근속은 무관  
— 조직 제도의 촉진 효과는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

### 경험과 함께 기대 ↑, 그러나 우려는 남는다

효율·혁신 기대는 계단식 상승 / 보안·격차 우려는 경험 후에도 유의한 감소 없음  
— 조직 수준 기준과 속의 과정이 별도 필요

### 격차는 세대와 자원에서 발생

30대>40대>20대>50대+ 순 / 예산 5억 미만 유의하게 낮음 / 예산 100억이상, 10~100억미만집단보다 낮음  
— 소규모: 자원지원 / 대규모: 자율 탐색 환경

### AI는 효율 ↑, 그러나 업무의미감(사명)은 독립적

업무몰입·에너지 예측 / 업무의미감은 AI와 독립 (p=.244)  
— '수혜자와의 관계, 현장 판단, 사람의 온기'는 AI 영역 밖

## 06. 시사점과 과제 조직과 섹터차원의 지원

1

### '규제'보다 '판단 환경' 조성

사용 허용·금지 규칙 전에, 어떤 업무에서 어떤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지  
결과물 검증 방법, AI 활용 사실 공개 방법 등 실무적 기준과 판단환경 제공

2

### 소규모 조직: 접근성 지원

예산 5억 미만 조직 활용수준 유의하게 낮음  
- 공동 라이선스, 비영리 할인 제도, 비영리 특화 교육 필요

3

### 세대별 맞춤 접근

50대: 오랜 현장 경험 → 업무 맥락 중심 접근 / 20대: 기술 친숙도 ↑ but 업무 맥락 경험 부족  
기술 교육보다 '내 업무에서의 AI 활용' 사례 중심이 효과적

4

### 가치 기반 AI 공론장

편향·기후 정의·전문성 약화 — 비영리 고유 윤리 질문  
섹터 AI 윤리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와 공간 필요

5

### 섹터 차원 속의 구조 형성

현재 개인 수준, 조직 간 단절 상태  
사례 공유, 섹터 공통 가이드라인, 정기 논의 구조 필요  
→ 중간지원조직 차원 역할 필요

---

비영리 섹터가 AI 시대에도 지켜가야 할 본질은 도구의 숙련도라기보다  
각 조직의 미션과 가치를 기준으로 기술과의 관계를 설계해 나가는 힘입니다.